

경남도, 동물과 조화로운 공존 일군다!

74억 투입, 유기 동물 보호·입양 활성화, 인프라 확충 등 13개 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2026년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총 74억 원을 투입해 동물복지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보호 수요 확대에 대응해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총 13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보호센터 건립 및 민간보호시설 개선 △반

려동물 문화센터와 놀이시설 건립 △농촌지역 실외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개식용 종식 이행 지원 △맹견 기질평가 운영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등이다.

유기 동물 발생 예방부터 구조·보호, 입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시설 확충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한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도 추진한다. 박

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동물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행정 분야가 되고 있다”며,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4개소(창원·밀양·거제·양산)를 조성했으며, 기존 동물보호센터 18개소 중 6개소(창원·통영·거제·남해·고성·함양)를 신축·이전해 동물 구조 및 보호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반북되는 고수온 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도내 양식 어류의 20%를 아열대 품종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는 벤자리와 능성어 등 8종의 아열대 품종 인공 종자 생산과 월동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최성룡 기자

농정 혁신 가속화! 2026 농정시책 설명회 개최

도-시군-유관기관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경북도는 11일 시·군 농정 부서장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정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경북 농정방향과 5대 중점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경북형 공동영농의 시군 연계 강화 방안과 국내 공모사업 대응 전략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6년 경북농정은 ‘농업소득 두 배로! 경북 농업대전환 확산 가속’을 목표로 ▲튼튼한 농업, 새로운 기회가 되는 농촌으로 대전환 ▲K-푸드 선도, 글로벌 농식품산업 구현 ▲농업생산시스템 혁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가축재량 및 스마트 기술로 미래 선진 축산 구현 ▲차단방역으로 건강한 가축,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 5대 중점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농식품부 국정과제로 채택

된 경북형 공동영농의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는 ‘선 교육 후 지원’ 체계를 본격 도입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마을 및 읍면 단위의 공동체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부체계 수립과 소득 배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컨

설팅을 병행하고,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 대상지 발굴에 속도를 내는 한편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스마트화를 위해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윤석 기자

업무도 결재도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결재’ 진행해

김영길 중구청장, 건축과·환경위생과 등 19개 부서 방문 40여 건 결재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일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현장 결재’는 집무실에서 결재를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청장이 직접 사업부서를 찾아가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 19개 부서를 순회하며 ‘공동주거시설 증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계획’, ‘탄소중립 연간종합계획’ 등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재한 40여 건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업무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중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직원들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운영했다”

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학성동 425-2번지 일원)에 범죄 예방을 위해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부지 면적 1,008㎡로 주차면 25개를 갖추고 있다.

중구는 오는 2월 말까지 해당 주차장을 무료로 시민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3월부터 울산중구도시

관리공단에 위탁해 유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구는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중부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인접한 구역전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임시주차장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선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시설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근 기자

통합돌봄 인적망 3대(代) 참여 ‘단!단!단 활동가’ 출범

달서구 의료·요양·돌봄·주거 통합 지원...어르신 존엄한 지역생활 보장



대구 달서구는 달서형 통합돌봄 사업 「달서가(家) 돌봄」의 인적 네트워크를 본격 구축하고, 3대(代)가 참여하는 ‘달서가(家) 돌봄 단!단!단 활동가’ 발대식을 11일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지역주민과 관내 복지시설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다 함께 돌봄’ 실천 의지

를 다졌다. 「달서가(家) 돌봄」은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어르신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달서구만의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이다. 달서구는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대(代)가 함께하는 3개 돌봄단으로 구성된 인적

를 다졌다. 「달서가(家) 돌봄」은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어르신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달서구만의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이다. 달서구는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대(代)가 함께하는 3개 돌봄단으로 구성된 인적

돌봄망 ‘단!단!단 활동가’를 조직했다.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7개 종합사회복지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한다.

기관에서 돌봄 대상자를 의뢰하면 건강 돌봄단이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 복약 지도, 산책 지

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관리를 돕는다.

지역 주민과 복지기관이 중심이 되어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사업 홍보를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실천한다. 달서구 멘토링 봉사단 대학생과 아동이 참여해 돌봄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정서적 교류를 이어간다. 세대를 잇는 만남을 통해 어르신의 고립감을 완화하고, 청소년에게는 효(孝)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달서구는 인적 돌봄망 운영을 통해 어르신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윤석 기자

울산시 액체화물 저장시설 신설 투자양해각서 체결해

울산에 뿌리를 둔 에너지 물류 기업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가 울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울산시는 12일 김두겸 울산시장과 유재형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액체화물 저장시설 제4탱크터미널 신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에너지·화학 산업 수요 급증에 대응해 울산항의 액체화물 저장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기 위해 추

진됐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총 920억 원을 투입, 약 9만 7,000㎥ 규모의 탱크 10기와 부대시설을 신설한다.

올해 3월 착공해 내년 9월 준공 후 같은 해 말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특히 최신 안전·환경 기준을 적극 반영해 터미널 운영 기반(인프라)을 대폭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가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하는 네 번째 투자로 기존 터

미널 운영 기반 위에 추가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항의 액체화물 물류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동북아 에너지·화학 물류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는 지역 경제 상생 차원에서 시설 운영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울산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기업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유재형 대표이사는 “액체화물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울산항과 함께 성장해 온 터미널 운영사로써 이번 투자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저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며 “울산이 동북아 에너지·화학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항의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성과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의 투자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호근 기자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2026대구마라톤

완벽한 안전, 품격 있는 레이스, 최정상 선수! 교통 등 4대 분야 준비 완료



대구광역시시는 오는 2월 22일(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2026대구마라톤’을 개최한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15개국 150여 명의 엘리트 선수와 34개국 41,104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라톤이다.

대회는 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10.9km, 건강달리기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세계 육상연맹(WA) 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대회는 ▲우승 상금은 20

만 달러로 향상됐고, 세계 신기록 도전을 위해 35km 이후 구간은 고저차를 약 10m 완화하고 반환 지점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했다. 또한 ▲집결지와 주요 구간 31개 지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한파 대비 실내 워밍업과 대기소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15개 업체가 참여하는 스포츠산업전과 ▲아름다운가게와 협업한 보은 의류 기부마라톤도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지난 9일 최종점검 보고

회를 마치고 운영·교통·안전·시민참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대회 남자부에서는 2025 대구마라톤 우승자인 탄자니아의 ‘게브리엘 제랄드 게이’(29)가 2연패와 2시간 4분대 기록에 도전하며, 2024년 2시간 4분 44초를 기록한 에티오피아의 ‘침데사 데벨레 구데타’(22)와 맞붙는다. 여자부에서는 지난해 우승자인 에티오피아의 ‘베세렛 베레테’(27)와 2시간 18분 32초 기록을 보유한 ‘데라 디다 아비’(30), 케냐 출신 하프마라톤 세계랭킹 3위 ‘릴리안 카사이트 렌제룩’(29)이 경쟁한다.

국내 정상급 선수들도 참전한다. 남자부에서는 2시간 17분대 기록을 보유한 ‘전수환’(27) 선수가 출전하며, 여자부에서는 지난해 2시간 32분 20초로 국내 우승을 차지한 ‘최정운’(33) 선수가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황보란 국장은 “대구 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고자 모든 지혜를 모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부산시 설연휴 늦은 밤 약 살 수 있어요

부산시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매일 밤 10시~익일 새벽 1시)에 시민에게 의약품 조제·판매와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여는 약국이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2026년 18곳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3곳은 ▲북구 한마음약국(구포동) ▲동래구 광재약국(사직동) ▲부산진구 미소약

국(양정동)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가 매년 급상승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심야시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2025년) 기준 연간 7만 5천여 명이 이용하여 9만 9천 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연휴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은 우리 시 누리집 ‘2026 설 연휴 생활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위치 및 실시간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규율 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공공보건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확대 운영과 제도 정착을 통해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15분도시 안전동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만드는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유우 기자